

KDB DAEWOO DAILY

2013. 8. 22 (목)

코스피지수 (8/21)	1,867.46P(-20.39P)
코스닥지수 (8/21)	530.54P(-7.03P)
KOSPI200지수 9월물	241.80P(-3.45P)
중국상해종합지수 (8/21)	2,072.96P(+0.37P)
NIKKEI225지수 (8/21)	13,424.33P(+27.95P)
원/달러 환율	1,117.40(-3.40)
엔/달러 환율	97.34(-0.30)
국고채 수익률 (3년)	2.97(+0.03)
유가(WTI) (8/21 18:26)	104.78(-1.98)
국내주식형펀드증감(8/20)	-454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8/20)	-247억원
고객예탁금(8/20)	187,076억원(+8,411억원)
신용잔고(8/20)	45,757억원(-205억원)

Strategy Essay

위기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 글로벌 신용위기 확산의 역사적 사례 검토

글로벌 마켓 네비게이션

선진국 증시,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속도 조절

기업분석

에스에프에이[매수] - 황준호: 숲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위기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 글로벌 신용위기 확산의 역사적 사례 검토

일부 이머징 국가들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는 점이 위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 금융시장은 차별화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환시장의 동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버냉키 쇼크가 있었던 지난 6월의 고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환율이 치솟고 있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한국이 위기를 불러오는 독자적인 발화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투자자들의 걱정은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되지 않을까'라는데 있다. 80년대 이후 나타났던 글로벌 신용위기의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단기 조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 위기 초기 국면에서 나타났던 통상적인 조정 강도를 감안하면 조정이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2)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부담은 대동남아 수출 감소이다.

7월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 일부 이머징 국가의 위기가 추세적 약세장 반전의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주변부 국가들의 신용위기가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한국이 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위기 발생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주변부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4) KOSPI, 박스권 기초 지속

신흥국의 신용위기는 선진국의 신용위기보다 전염 강도가 약하다. 지난 수 년간 글로벌 증시를 압박했던 유럽 재정위기가 주는 무게가 신흥 시장의 위기보다 훨씬 무겁다. KOSPI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1,800~2,000p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지는 국면에서도 이 박스권은 깨지지 않았다.

한국 증시, 매를 같이 맞고 있지만 그래도 다르다

일부 이머징 국가들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는 점이 위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 금융시장은 차별화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환시장의 동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버냉키 쇼크가 있었던 지난 6월의 고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환율이 치솟고 있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로 유입된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잠재적인 위험국가가 될 수 있다. 양적완화가 시작된 2009년 이후 한국 금융시장에 유입된 자금 규모는 인도, 브라질 등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상수지가 뚜렷한 흑자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 금융권의 해외 차입 규모가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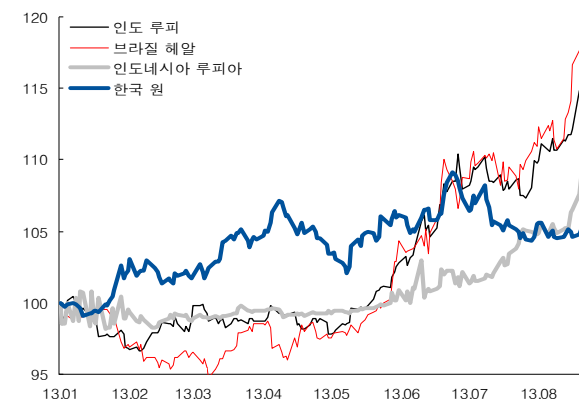
대외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권의 해외 차입은 대단히 중요하다. 해외에서 외화가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이다. 교역을 통한 경상수지,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투자, 금융권의 대외 차입 등이 그것들이다.

이중 경상수지는 한 국가의 펀더멘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잣대이고, 포트폴리오 투자도 펀더멘털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금융권의 대외 차입도 펀더멘털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유동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자금을 빌리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금융기관의 과도한 차입이 외환시장 교란의 트리거가 됐다. 97년 IMF 외환위기는 중금사들의 단기 차입이, 08년 리먼 파산 전후 국면에서의 ‘유사 외환위기’는 은행권의 장단기 미스매치가 외환시장 불안의 단초로 작용한 바 있었다.

그림 1. 문제 국가들과 차별화되고 있는 한국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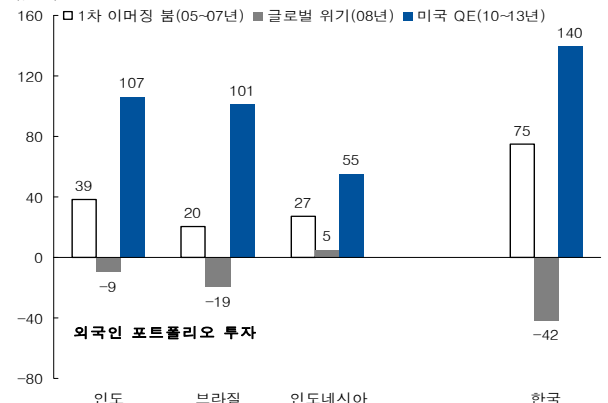
(달러 대비 환율, 13년 초 = 100)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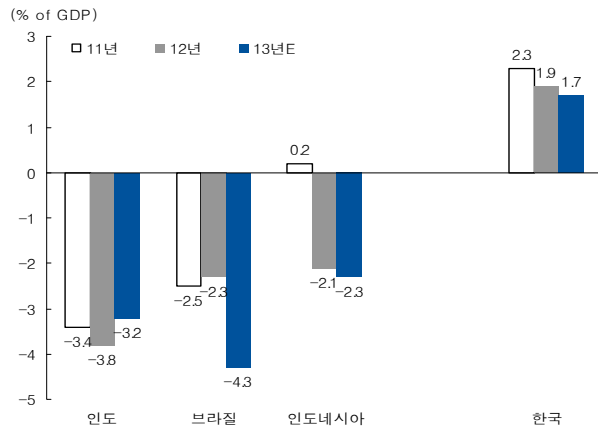
그림 2. 한국도 QE 국면에서 금융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 커

(\$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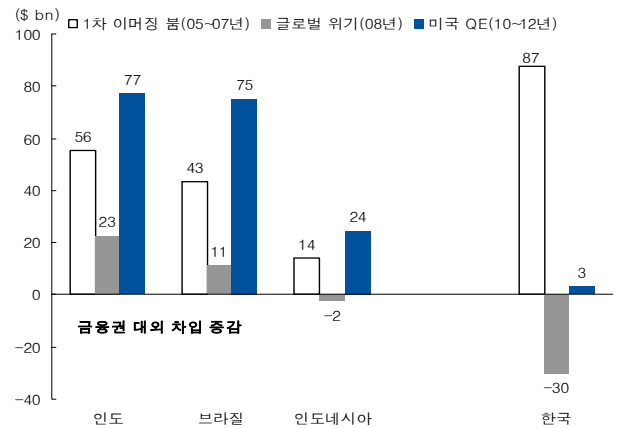
주: 국면별 외국인 주식·채권 순매수 규모 / 자료: Bloomberg, CEIC

그림 3. 한국의 버팀목은 차별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자료: IMF

그림 4. 한국 금융기관의 대외 차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



자료: 세계은행

이머징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될까?

한국이 위기를 불러오는 독자적인 발화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투자자들의 걱정은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되지 않을까’라는데 있다. 과거에 나타났던 글로벌 신용위기의 사례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봤다.

1)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머징 국가의 위기가 글로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 경우는 없었다. 80~90년대 라틴아메리카 외환위기, 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은 모두 국지적인 쇼크로 그쳤다. 그렇지만 위기의 진원지와 관계 없이 특정 지역에서 신용경색 이슈가 부각될 때 주가는 거의 예외없이 단기 조정을 받았다.

과거의 경험적 단기 조정 강도를 감안하면 최근의 조정 강도는 충분한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 동남아 경기 위축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 성장 둔화의 후유증을 지난 수년 간 경험하고 있지만, 실물의 문제가 아닌 이머징 국가에서의 신용경색이 글로벌 전반의 수요 둔화로 귀결된 경우는 없었다. 다만 한국은 최근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 신용경색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림 8 참조)

이미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2개월 연속 20%대의 감소세(YoY)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참조)

완만하지만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수출 감소가 수출 총량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선진국으로의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3) 이머징의 위기가 추세적인 약세장 반전의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주변부 국가들의 신용위기가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한국이 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위기 발생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주변부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수출 감소,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도, 환율 급등 등의 총체적 위기는 신용 경색의 진원지가 선진국일 때 나타났다. 미국 S&L사태(89~90년), 글로벌 위기(08년), 유럽 재정위기(10~12년)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머징의 위기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던 경우는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유일한 사례였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이머징 채권 가격이 급락세를 나타냈고, 이 과정에서 이머징 채권에 대해 매수(long) 포지션을 잡고있던 거대 헤지펀드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이 파산하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이 나타났다.

LTCM은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40억 달러에 31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만일 최근 이머징 위기 국면에서도 특정 투자자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투자한 포지션이 청산될 때 신용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헤지펀드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위기 이후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었고, 구미권 금융주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위기의 전염 강도를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림 10~12)

표 1. 80년대 이후 신용 위기 발생 사례

이벤트	발생 시기	KOSPI 등락률			외국인 매매	원/달러 환율 변화	수출 증가율 변화 (YoY)
		D-6월	해당월(D)	D+6월			
멕시코 외환위기	82년	-5.3	-2.8	1.3	- (주식시장 대외 개방 이전)	완만한 원화 약세 (740 → 770원)	부진 : 6%→1% (미국 긴축 영향이 더 커)
브라질 외환위기	83년	-3.8	-4.9	9.1		완만한 원화 약세 (772 → 790원)	회복 : 2%→5% (미국 긴축 기조 완화)
미국 S&L 사태	89~90년	-5.8	-8.3	6.4		원화 약세 (669 → 728원)	부진 : 10%→1% (미국 소비 둔화)
북유럽 은행위기	91~92년	6.6	-6.3	-11.9	+0.5조 원 (위기 직후 6개월)	완만한 원화 약세 (751 → 789원)	큰 영향 없음 (10% 내외 수출 증가율 유지)
멕시코 외환위기	95년	-0.3	-9.9	0.8	-0.9조 원 (위기 전후 8개월)	완만한 원화 강세 (796 → 779원)	호조 : 15%→27% (미국 경기 호조)
동아시아 외환위기	97~98년	5.9	-2.5	-21.8	-1.9조 원 (위기 전후 4개월)	외환 위기 (902 → 1,962원)	부진 : 2%→-6% (기업 연쇄 부도)
러시아 모라토리엄	98년	-44.5	-9.6	67.6	-0.4조 원 (위기 전후 4개월)	큰 폭의 원화 약세 (1,171 → 1,310원)	부진 : 0% (98년 8월)
아르헨티나 모라토리엄	01년	16.5	7.7	7.1	+3.7조 원 (위기 전후 3개월)	원화 강세 (1,252 → 1,181원)	부진 : 3%→-12% (IT 버블 붕괴로 대미 수출 급감)
글로벌 위기	08년	-15.0	-1.7	-16.6	-32.8조 원 (위기 전후 10개월)	외환위기 (971 → 1,548원)	부진 : 21%→-18% (글로벌 경기 급랭)
유럽 재정 위기	10~12년	5.5	-5.7	16.0	-6.2조 원 (10년 5월)	원화 약세 (1,057 → 1,172원)	부진 : 28%→4% (유럽 수출 감소, 중국 경기 부진)

주: 음영으로 정리된 부분은 외국인 매매, 원화 약세, 수출 위축 등 한국 증시와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던 사례들 / 유럽 재정위기는 시발점인 2010년 5월 그리스 사태

자료 :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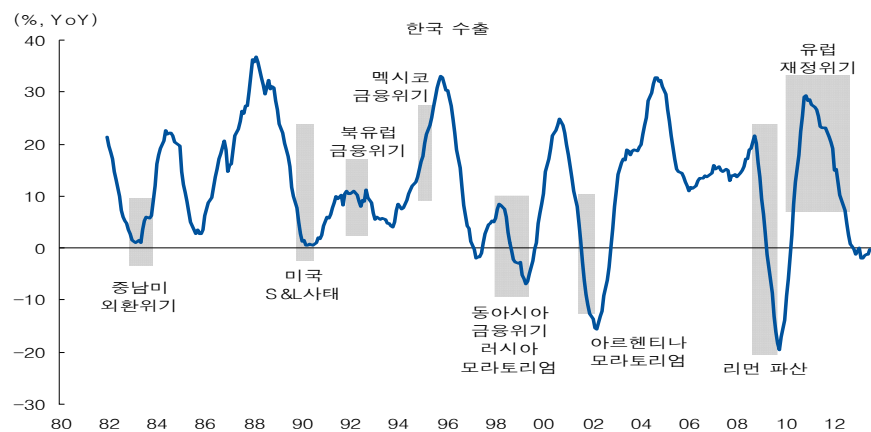
4) KOSPI, 박스권 기조 지속

외환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부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는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한국 증시로 전염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흥국의 신용위기는 선진국의 신용위기보다 전염 강도가 약하다. 지난 수 년간 글로벌 증시를 압박했던 유럽 재정위기가 주는 무게가 신흥 시장의 위기보다 훨씬 무겁다고 본다.

KOSPI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1,800~2,000p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지는 국면에서도 이 박스권은 깨지지 않았다.

아직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있다고 보지만,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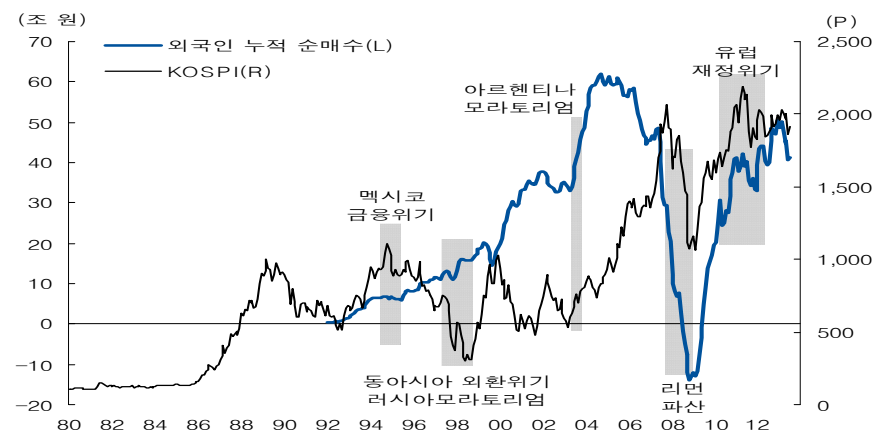
그림 5. 80년대 이후 신용 위기와 한국 수출 증가율 - 주변부 국가 위기와 수출의 상관관계 낮아



주: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12개월 이동평균의 전년 동기비 증감률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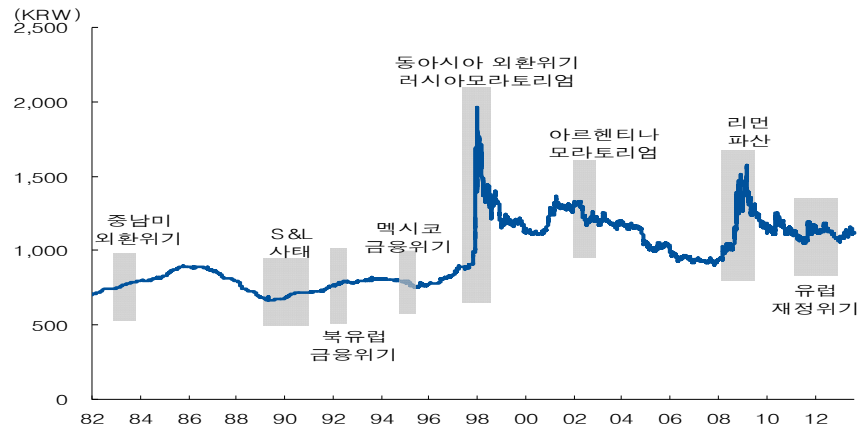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80년대 이후 신용 위기와 외국인 매매 - 대체로 위기가 불거지는 초기 국면에서는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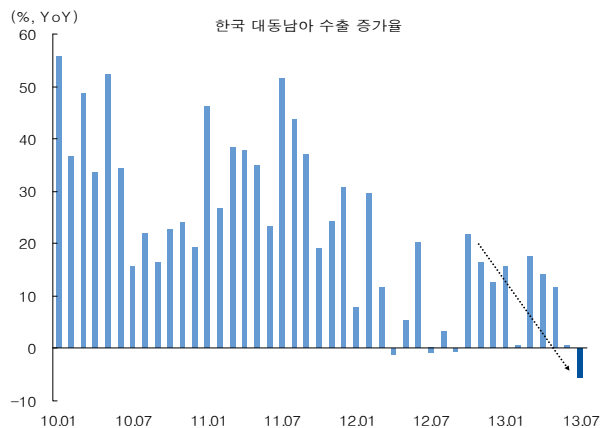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80년대 이후 신용 위기와 원/달러 환율 - 대체로 원화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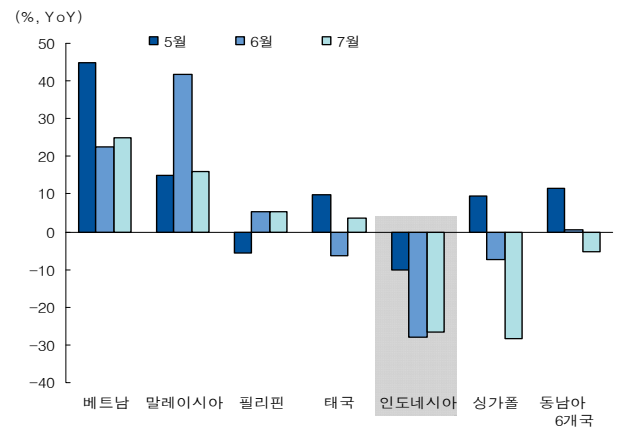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7월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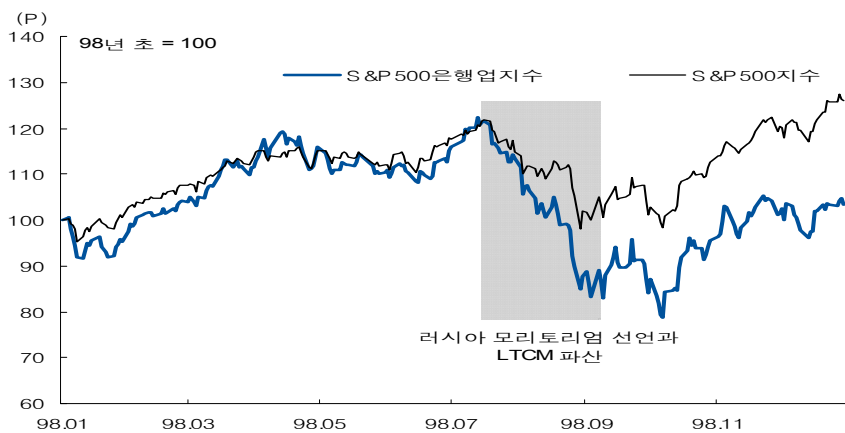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대인도네시아 수출 빠른 속도로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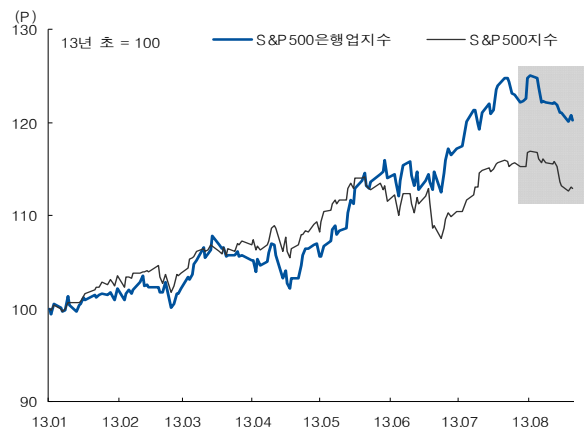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LTCM 파산 국면에서 금융주 약세는 시스템 리스크의 사전적 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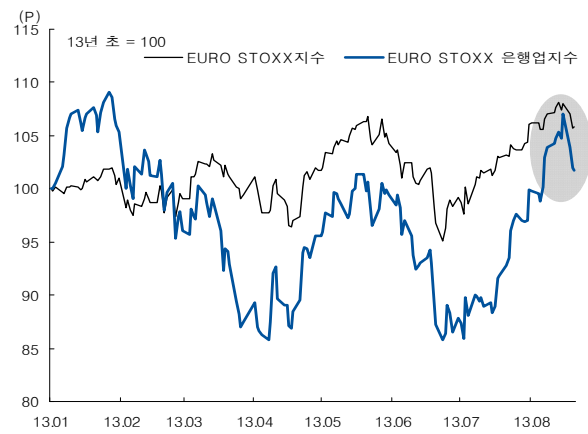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최근 미국 은행주의 두드러진 약세 조짐은 없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유럽 은행주 약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경제 박준일 02-768-3717 justin.park@dwsec.com
이정민 02-768-3267 jennifer.lee@dwsec.com

선진국 증시,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속도 조절

글로벌 이슈: 지난 7월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으로 연준의 조기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일제히 반등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outperform 해오던 미국 증시의 반등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미국 증시의 제한적 반등의 배경에는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경기 개선 기대감을 반영한 금리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였으나, 문제는 그 속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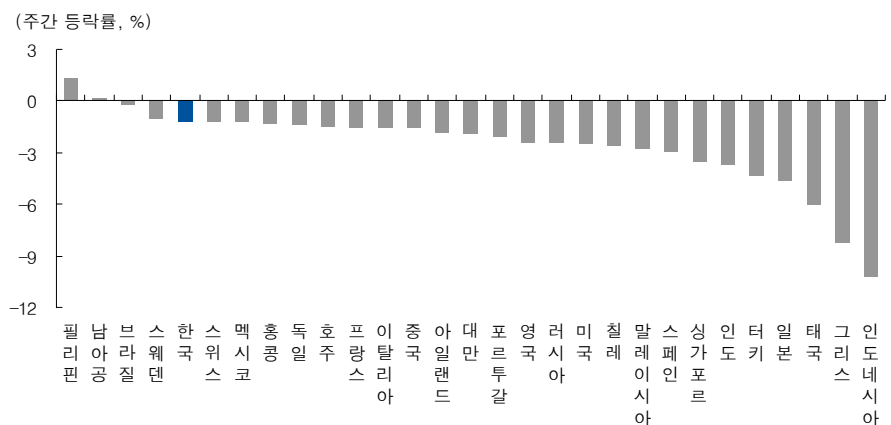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일드갭(Yield gap) 역시 축소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영국 등 선진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섹터 동향: 8월 IBES 실적 추정치 집계 결과 MSCI AC World Index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는 전월 대비 0.82% 하향 조정되며(7월 -0.6%) 지난해 4월 이후 전월 대비 하향세를 이어갔다.

선진국의 실적 추정치는 전월 대비 0.74% 하향 조정되며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신흥국은 1.31% 하향 조정되며 전월(-1.38%) 대비 낙폭을 소폭 축소했다.

한국의 실적 추정치(-1.76%)는 경기소비재(+0.22%) 섹터를 제외하고 전 섹터가 하향 조정된 여파로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를 기록했다. 단,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국 및 브라질, 터키 등 금리 인상을 단행한 국가들보다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외국인 수급 여건 역시 이머징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주요국 증시 주간 등락률



주: 8월 20일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이슈: 선진국 증시,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속도 조절

미국 증시의 반등 강도 둔화

지난 7월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으로 연준의 조기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일제히 반등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outperform 해오던 미국 증시의 반등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지난 6월 저점 대비 MSCI 전세계지수는 6.9% 반등했지만, 미국 S&P500지수는 5.0% 상승에 그쳤다. 10% 넘게 급등한 선진 유럽 증시에 비해서도 부진한 성적표였다.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미국 증시의 반등 제한

미국 증시의 제한적 반등의 배경에는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경기 개선 기대감을 반영한 금리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겠으나, 문제는 그 속도이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7월 초 대비 8.6bp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7월 초 대비 각각 16.2bp, 21.9bp 상승했다.

금리 급등의 부작용은
주택경기에 반영될 가능성

금리의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주택시장이다. 금리 상승은 건설비용 증가와 모기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주택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세를 이끌었던 주택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
등 선진유럽 일드갭 축소

고점을 돌파해 가파르게 상승 중인 금리와, 금융위기 이전 고점(15배)에 근접한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8월 현재 14.5배)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상승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일드갭(Yield gap) 역시 축소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영국 등 선진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리의 흐름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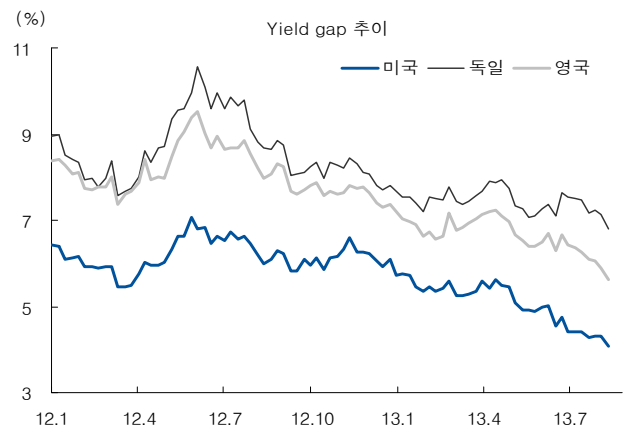
결국 하반기 미국 증시의 방향성 및 반등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첫번째 시험대는 9월 18일에 예정된 FOMC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미국 국채금리 급등,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져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선진국의 채권 대비 주식 투자 매력도 하락세



주: Yield gap은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격차(미국 PER의 역수-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8월 IBES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지속

전세계: 전월비 -0.82%
선진국: 전월비 -0.74%
신흥국: 전월비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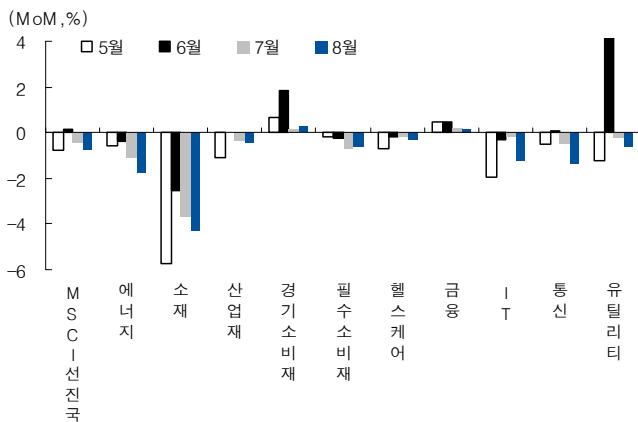
글로벌 섹터 동향: 8월 IBES 실적 추정치 전월 대비 하향 조정

지난 주 글로벌 섹터에서는 전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금융(-2.5%)과 필수소비재(-2.3%)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선진국에서는 금융(-2.1%) 섹터의 낙폭이 가장 컸고, 신흥국에서는 헬스케어(-6.1%)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8월 IBES 실적 추정치 집계 결과 MSCI AC World Index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는 전월 대비 0.82% 하향 조정되며(7월 -0.6%) 지난해 4월 이후 전월 대비 하향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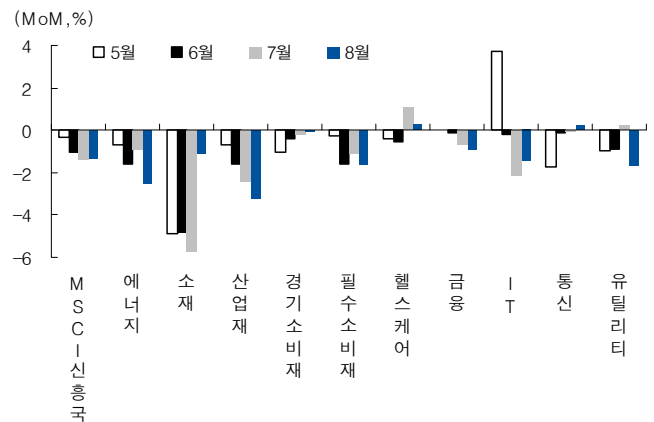
선진국의 실적 추정치는 전월 대비 0.74% 하향 조정되며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신흥국은 1.31% 하향 조정되며 전월(-1.38%) 대비 낙폭을 소폭 축소했다. 섹터별로는 선진국의 경우 경기소비재(+0.31%)와 금융(+0.15%) 섹터의 실적 추정치가 연초부터 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에너지(-2.53%), 산업재(-3.17%) 섹터의 하향 조정이 두드러졌다.

그림 3. 선진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경기소비재, 금융 (+) 기록



주: MSCI 선진국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신흥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IT 3개월 연속 하향 조정



주: MSCI 신흥국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일본 실적 추정치 8개월 연속
상향 조정**

선진국에서는 일본의 실적 추정치(전월 대비 +0.71%)가 8개월 연속 상향 조정되었다. 상승폭 역시 7월(+4.29%)에 비해 확대되었다. 다만 그동안 일본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엔화 약세 현상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 일본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역할
부각될 전망**

일본 엔화 약세 기조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당분간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대두될 정도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 엔화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8월 현재 기준 MSCI 일본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PER은 13.9배로 미국의 14.5배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 실적 추정치 2개월 연속
하향 조정**

한편 미국의 실적 추정치(-0.42%)는 2개월 연속 하향 조정되었다. 다만 금융 섹터의 경우 전월 대비 1.02% 상향 조정되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리 급등세로 인하여 모기지 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 모기지 대출 시장 위축으로 인한 미국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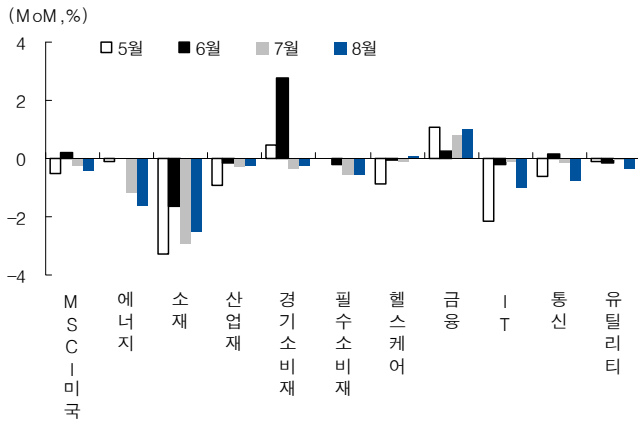
**인도, 인도네시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폭 두드러져**

신흥국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세를 이어갔다. 이머징아시아 중 인도네시아(-2.32%)와 인도(-1.67%)의 하향 조정폭이 두드러졌다. 하반기 중 미국 Tapering이 실질적으로 시작된다면 경상/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의 자본 유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은 낮다고 판단한다.

**한국, 양호한 펀더멘털 영향에
실적 추정치 크게 악화될 가능성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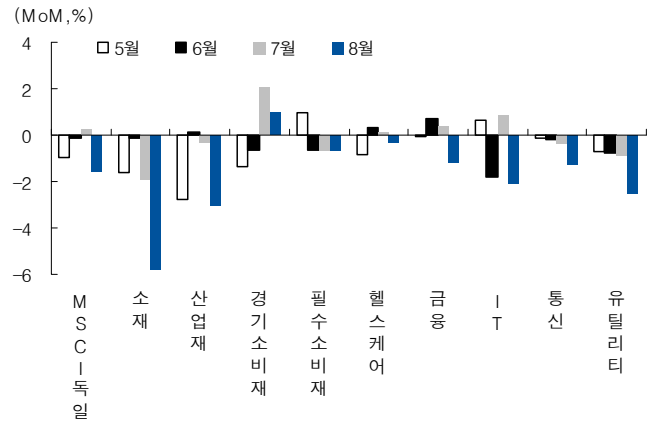
한편 한국의 실적 추정치(-1.76%)는 경기소비재(+0.22%) 섹터를 제외하고 전 섹터가 하향 조정된 여파로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를 기록했다. 단,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국 및 브라질, 터키 등 금리 인상을 단행한 국가들보다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외국인 수급 여건 역시 이머징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그림 5. 미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금융 섹터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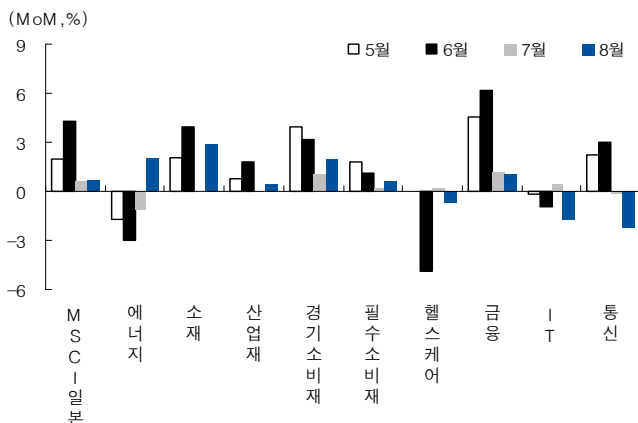
주: MSCI 미국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독일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경기소비재 1.0%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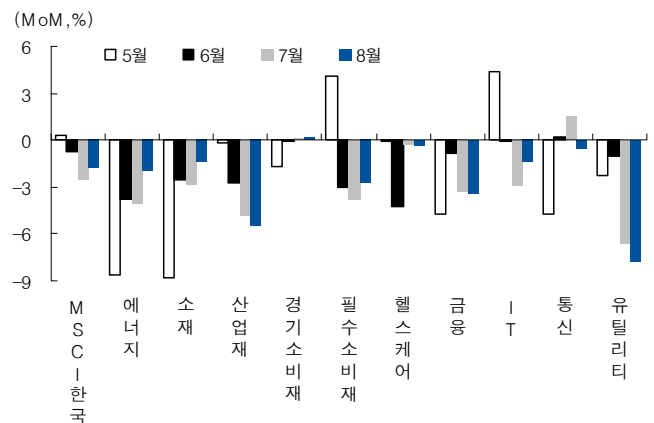
주: MSCI 독일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일본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IT 섹터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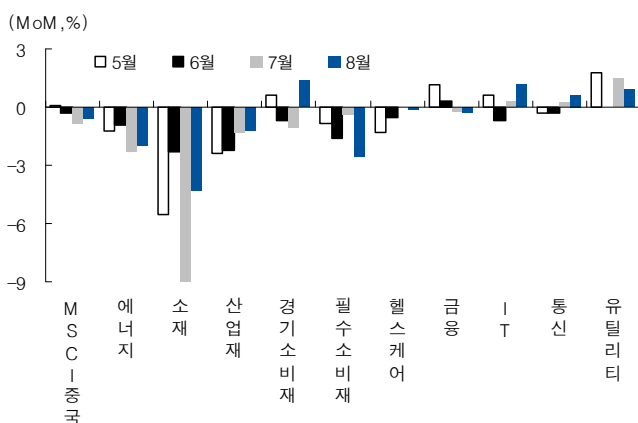
주: MSCI 일본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경기소비재 상향 조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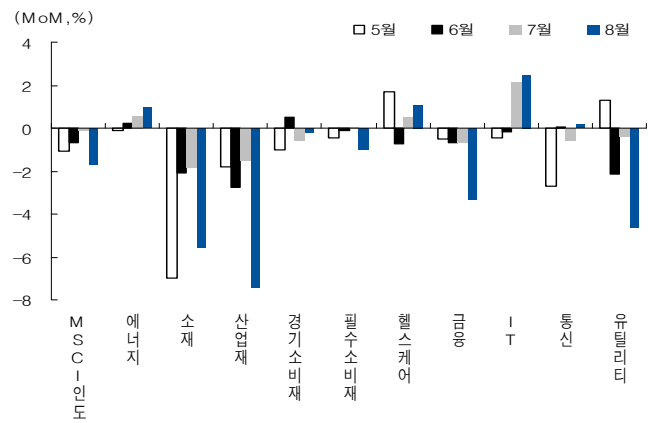
주: MSCI 한국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중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경기소비재 상향 조정



주: MSCI 중국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인도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소재/산업재 큰 폭으로 하향



주: MSCI 인도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지역별 실적 추정치 월간 변화율: 선진국, 이머징마켓 모두 하향 조정 지속

(단위: %)

	전세계	선진국	EM	선진유럽	EM아시아	EM유럽	EM남미	EMEA
2012년 8월	-1.46	-1.44	-1.56	-1.73	-2.08	0.30	-1.68	-0.09
2012년 9월	-0.94	-0.77	-1.93	-1.04	-1.83	-0.65	-3.36	-0.96
2012년 10월	-0.76	-0.75	-0.81	-0.87	-0.69	-0.48	-1.67	-0.40
2012년 11월	-1.60	-1.75	-0.70	-1.80	-0.35	-0.30	-2.31	-0.21
2012년 12월	-0.65	-0.68	-0.51	-1.02	-0.23	1.13	-2.12	0.08
2013년 1월	-0.32	-0.37	-0.02	-0.42	0.11	0.18	-0.31	-0.10
2012년 2월	-0.66	-0.63	-0.83	-1.42	-0.72	0.24	-1.99	-0.22
2013년 3월	-0.25	-0.19	-0.42	-0.71	0.13	0.13	-1.40	-0.87
2013년 4월	-0.27	-0.24	-0.55	-1.07	0.38	-1.28	-2.28	-1.67
2013년 5월	-0.71	-0.78	-0.31	-1.62	0.33	-0.46	-1.23	-1.29
2013년 6월	-0.01	0.16	-1.02	-0.75	-0.47	-2.02	-1.79	-2.03
2013년 7월	-0.60	-0.46	-1.38	-0.83	-1.35	-1.03	-1.72	-1.19
2013년 8월	-0.82	-0.74	-1.31	-1.40	-1.23	-0.66	-2.50	-0.59

주: MSCI 지역별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EMEA는 Europe, Middle East, Africa의 약어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주요 선진국 국가별 실적 추정치 월간 변화율: 일본 상향폭 확대. 미국, 2개월 연속 하향 조정

(단위: %)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2012년 8월	-0.97	-2.36	-1.65	-1.68	-2.01	-1.75	-2.67	-3.84	-4.79	-2.87
2012년 9월	-0.16	-2.79	-3.20	-1.63	-0.09	-0.81	-2.47	-1.61	-2.26	-2.20
2012년 10월	-0.48	-2.06	-1.89	-1.16	-1.20	-1.17	-2.80	-1.25	-21.06	-2.41
2012년 11월	-1.52	-3.90	-1.44	-1.75	-1.89	-1.40	-1.34	-3.67	-0.77	-3.49
2012년 12월	-0.52	-0.60	-0.72	-0.69	-1.33	-0.86	-5.43	-1.71	-3.90	-2.34
2013년 1월	-0.56	1.44	-0.24	-0.45	-0.61	-0.38	-0.50	-0.91	-2.86	0.07
2012년 2월	-0.65	2.54	-0.18	-1.18	-1.55	-0.68	-0.85	-4.43	-0.19	-1.57
2012년 3월	-0.16	2.44	-0.11	-0.18	-1.23	-1.01	-2.60	-2.60	-5.10	-1.53
2013년 4월	-0.03	2.22	-0.97	-1.10	-0.47	-1.08	-2.67	-3.73	-5.85	-1.89
2013년 5월	-0.54	1.97	-0.77	-1.50	-2.06	-0.98	-5.65	-4.14	0.74	-3.64
2013년 6월	0.19	4.29	-1.27	-0.89	-0.59	-0.15	-3.34	-2.55	-3.48	-2.07
2013년 7월	-0.26	0.59	-0.95	-1.04	-0.78	0.26	-1.66	-2.40	-0.96	-2.19
2013년 8월	-0.42	0.71	-0.78	-1.70	-1.19	-1.53	-4.32	-2.68	-0.45	-2.47

주: MSCI 국가별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주요 이머징마켓 국가별 실적 추정치 월간 변화율: 인도, 인도네시아 하향 조정폭 확대

(단위: %)

	한국	중국	대만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2012년 8월	-1.59	-1.85	-5.37	-1.78	-1.49	-1.74	0.01	0.02	-1.37	0.57
2012년 9월	-0.64	-3.64	-1.49	-0.79	-0.71	-1.01	-1.14	0.03	-4.23	-0.78
2012년 10월	-0.92	-0.37	-1.06	-1.26	-0.40	-1.12	-0.37	0.19	-1.25	-0.57
2012년 11월	-0.45	-0.56	0.75	-1.01	-0.49	-0.44	-0.09	-1.26	-2.46	-0.18
2012년 12월	0.08	-0.39	-0.10	-0.76	-0.07	-0.50	-1.68	1.59	-2.54	1.32
2013년 1월	0.20	0.19	-0.24	-0.24	0.45	-0.41	-0.41	0.97	-0.50	0.29
2012년 2월	-1.81	-0.04	-0.99	-0.60	-0.09	-0.19	-0.36	-0.25	-2.17	0.43
2012년 3월	0.13	0.27	1.08	-0.49	-0.65	0.32	-1.26	-0.39	-1.14	0.18
2012년 4월	1.32	0.49	-0.29	-0.17	-0.71	-0.40	-0.58	-0.09	-1.90	-1.43
2012년 5월	0.32	0.10	2.73	-0.46	-1.08	-1.22	-0.26	1.79	-0.45	-0.34
2012년 6월	-0.76	-0.29	-0.06	-0.30	-0.66	-0.77	-0.99	0.38	-1.28	-2.53
2012년 7월	-2.55	-0.86	-1.27	-0.91	-0.12	-1.29	0.19	-1.02	-1.12	-0.76
2013년 8월	-1.76	-0.59	-1.55	-1.47	-1.67	-2.32	-0.08	-0.63	-3.59	-0.12

주: MSCI 국가별 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1개월 변화율 산출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지역별 12개월 Forward PER: 선진국, 이머징마켓 PER 동반 상승

(단위: 배)

	전세계	선진국	EM	선진유럽	EM아시아	EM유럽	EM남미	EMEA
2012년 8월	11.70	12.00	9.91	10.65	10.33	6.04	11.18	7.75
2012년 9월	12.07	12.37	10.25	10.97	10.58	6.51	11.79	8.14
2012년 10월	12.00	12.31	10.18	10.98	10.50	6.40	11.81	8.00
2012년 11월	11.54	11.82	9.96	10.87	10.28	6.17	11.47	7.87
2012년 12월	12.22	12.51	10.55	11.40	10.92	6.51	12.35	8.19
2013년 1월	12.49	12.81	10.68	11.65	11.00	6.74	12.52	8.34
2012년 2월	12.74	13.11	10.64	11.83	10.94	6.72	12.34	8.35
2013년 3월	12.96	13.34	10.61	12.08	10.85	6.64	12.46	8.31
2013년 4월	12.74	13.17	10.12	11.78	10.34	6.30	12.08	7.90
2013년 5월	13.46	14.00	10.41	12.50	10.62	6.55	12.19	8.32
2013년 6월	12.87	13.38	9.84	12.06	10.06	6.05	11.54	7.81
2013년 7월	13.18	13.74	9.90	12.14	10.13	6.18	11.44	8.01
2013년 8월	13.33	13.86	10.13	12.66	10.28	6.20	12.14	8.09

주: EMEA는 Europe, Middle East, Africa의 약어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5. 주요 선진국 국가별 12개월 Forward PER: 미국 PER 상승, 일본 PER 하락

(단위: 배)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2012년 8월	12.80	11.36	11.82	10.37	10.30	9.82	10.25	8.29	8.56	9.29
2012년 9월	13.20	11.71	12.38	10.61	10.43	10.34	11.42	9.09	8.64	10.54
2012년 10월	13.12	11.34	12.75	10.60	10.46	10.44	11.78	9.02	12.24	10.34
2012년 11월	12.25	11.47	12.54	10.48	10.37	10.23	11.55	8.92	12.70	10.00
2012년 12월	12.99	12.82	13.16	10.89	11.01	11.00	13.21	9.40	13.38	10.49
2013년 1월	13.22	13.73	13.44	11.12	11.10	10.98	13.96	10.10	14.95	11.12
2012년 2월	13.60	14.00	13.99	11.43	11.18	10.93	13.82	9.79	16.24	10.63
2013년 3월	13.82	14.24	14.41	11.41	11.62	11.34	13.63	9.62	17.50	11.00
2013년 4월	13.67	14.91	13.99	11.22	11.18	10.96	13.57	9.51	17.42	10.40
2013년 5월	14.56	15.85	14.54	11.88	12.10	11.65	14.50	10.85	12.89	11.34
2013년 6월	14.16	13.44	13.37	11.48	11.68	11.33	14.44	10.19	11.70	11.07
2013년 7월	14.50	14.77	13.76	11.71	11.62	11.14	13.30	9.83	10.76	10.67
2013년 8월	14.52	13.90	14.15	12.02	12.34	11.54	15.00	11.13	13.43	12.21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6. 주요 이머징마켓 국가별 12개월 Forward PER: 한국, 중국 PER 동반 상승

(단위: 배)

	한국	중국	대만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2012년 8월	8.79	8.70	14.36	10.95	12.92	13.11	14.32	15.80	9.73	4.79
2012년 9월	8.85	8.89	14.89	10.96	13.50	13.47	14.22	15.92	10.37	5.23
2012년 10월	8.43	9.20	14.44	10.77	13.50	13.89	14.23	16.02	10.12	5.00
2012년 11월	8.13	9.20	13.60	10.70	13.53	13.77	14.03	16.28	9.90	4.73
2012년 12월	8.68	9.92	14.27	11.83	14.25	13.71	14.22	16.45	10.66	5.02
2013년 1월	8.46	10.27	14.27	11.92	14.44	13.90	14.43	17.57	10.76	5.20
2012년 2월	8.54	9.99	14.68	12.10	13.92	14.29	13.90	19.39	10.54	5.34
2013년 3월	8.91	9.57	14.45	12.61	13.82	15.02	14.29	20.49	10.79	5.11
2013년 4월	8.44	8.78	14.02	12.18	13.22	14.95	14.67	20.07	10.26	4.62
2013년 5월	8.06	9.12	14.41	12.84	13.86	15.15	15.43	20.90	10.42	4.79
2013년 6월	8.06	8.25	13.57	11.58	13.58	14.29	15.53	18.93	9.70	4.43
2013년 7월	8.01	8.23	14.00	12.06	13.89	13.83	15.51	19.55	9.35	4.71
2013년 8월	8.26	8.81	13.49	12.06	13.38	14.00	15.36	19.39	10.00	4.60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7. 주간 상승률/하락률 상위 20대 종목

(%)

상승률 상위 종목						하락률 상위 종목					
Rank	기업	국가	업종	5D	1M	Rank	종목	국가	업종	5D	1M
1	골드코프	캐나다	소재	12.3	16.1	1	뱅크 Rakyat	인도네시아	은행	-17.0	-15.4
2	바릭골드	캐나다	소재	12.0	20.0	2	방코 산탄데르	브라질	은행	-14.3	-7.7
3	머스크	덴마크	운송	8.6	13.3	3	얼라이드아이리시 뱅크	아일랜드	은행	-12.0	20.0
4	선코 에너지	캐나다	에너지	5.2	5.5	4	뱅크 센트럴아시아	인도네시아	은행	-11.7	-7.4
5	페트로브라스	브라질	에너지	4.6	7.9	5	텔레코뮤니카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통신	-11.1	-10.7
6	흥업은행	중국	은행	4.1	14.6	6	한자야 만달라 삼포에나	인도네시아	음식료/담배	-10.0	-14.0
7	코네	핀란드	자본재	3.8	4.0	7	아스트라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자동차/부품	-9.8	-10.5
8	페이스북	미국	IT/SW	3.8	48.4	8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	은행	-8.2	-3.0
9	민생은행	중국	은행	3.4	11.3	9	AIS	태국	통신	-8.2	-13.4
10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중국	에너지	3.2	6.9	10	ONGC	인도	에너지	-7.7	-19.0
11	TJX	미국	유통	3.0	3.5	11	KDDI	일본	통신	-7.7	-6.9
12	SABIC	사우디	소재	2.9	5.0	12	시스코 시스템즈	미국	IT/HW	-7.6	-5.8
13	임페리얼 오일	캐나다	에너지	2.7	-1.9	13	아파치 코프	미국	에너지	-7.6	-10.2
14	임페리얼 토바코	영국	음식료/담배	2.6	0.2	14	자딘 스트래티직 홀딩스	홍콩	자본재	-7.4	-8.6
15	애플	미국	IT/HW	2.3	17.9	15	뱅크 만다리	인도네시아	은행	-7.1	-10.3
16	텔러스	캐나다	통신	2.1	0.7	16	터키 가란티뱅크	터키	은행	-6.9	-8.1
17	인테사 상파울로	이탈리아	은행	2.1	12.8	17	바티에어텔	인도	통신	-6.8	-3.5
18	프라다	이탈리아	의류/내구재	1.9	5.2	18	세븐& 홀딩스	일본	음식료유통	-6.7	-12.3
19	크라운캐슬	미국	통신	1.9	-10.1	19	리오틴토	영국	소재	-6.5	4.5
20	알라지 뱅크	사우디	은행	1.9	8.1	20	홈디포	미국	유통	-6.5	-7.0

주: 8월 20일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8. 주요 52주 신저가 종목

(십억 달러, %)

기업	국가	업종	산업 그룹	시가총액	5D	1M	YTD	52주 신저가 기록일
IBM	미국	IT	IT/SW	202.2	-2.0	-4.6	-3.6	13-08-20
ICICI 뱅크	인도	금융	은행	15.1	-4.2	-13.4	-27.0	13-08-20
자딘 스트래티직 홀딩스	홍콩	산업재	자본재	36.6	-7.4	-8.6	-9.2	13-08-20
뱅크 Rakyat	인도네시아	금융	은행	15.8	-17.0	-15.4	-1.4	13-08-20
뱅크 만다리	인도네시아	금융	은행	17.0	-7.1	-10.3	-3.7	13-08-20
인디아 스테이트뱅크	인도	금융	은행	16.8	-3.2	-14.2	-34.9	13-08-20
아스트라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22.5	-9.8	-10.5	-21.7	13-08-20
사이먼 프로퍼티그룹	미국	금융	부동산	45.2	-6.0	-11.5	-7.7	13-08-19
벤티스	미국	금융	부동산	17.7	-4.6	-15.6	-6.8	13-08-19
HCP	미국	금융	부동산	18.2	-2.8	-14.0	-11.5	13-08-19
월마트 멕시코	멕시코	필수소비재	음식료유통	46.7	-2.4	-2.4	-18.2	13-08-19

주: 8월 20일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9. 주요 52주 신고가 종목

(십억 달러, %)

기업	국가	업종	산업 그룹	시가총액	5D	1M	YTD	52주 신고가 기록일
할리버튼	미국	에너지	에너지	43.3	1.7	3.3	36.5	13-08-20
TJX	미국	경기소비재	유통	39.0	3.0	3.5	27.8	13-08-20
SABIC	사우디	소재	소재	79.2	2.9	5.0	10.3	13-08-20

주: 8월 20일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Market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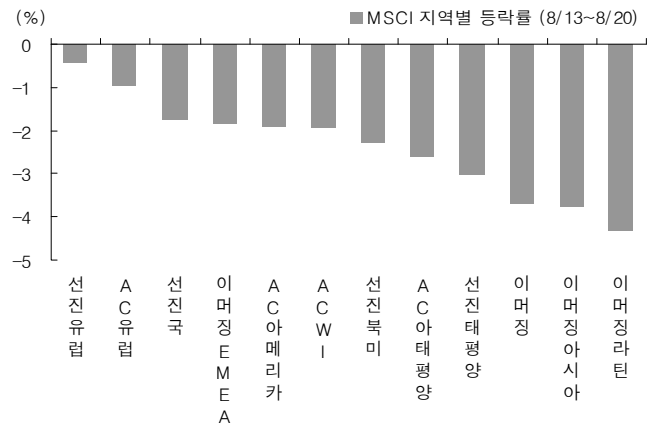
- 선진국, 신흥국 증시 동반 하락. 이머징라틴 지역,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선진국: 미국 증시 2.4% 하락. 그리스 증시 5.7% 하락
- 신흥국: 한국 증시 1.6% 하락. 인도네시아 증시 15.2% 하락

MSCI 글로벌 지수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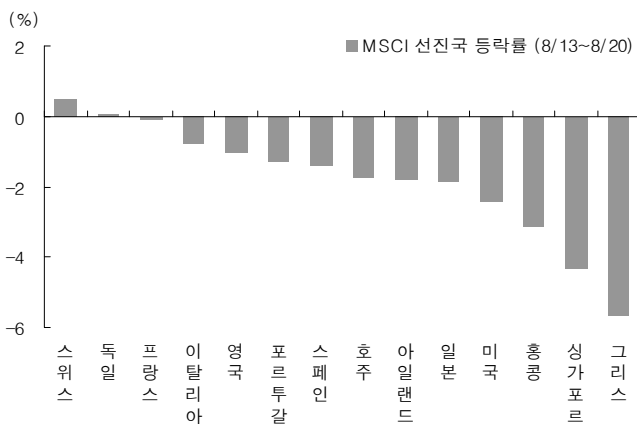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지역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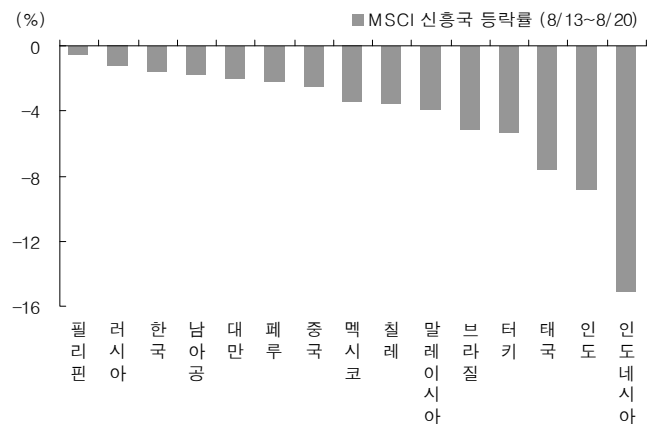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국가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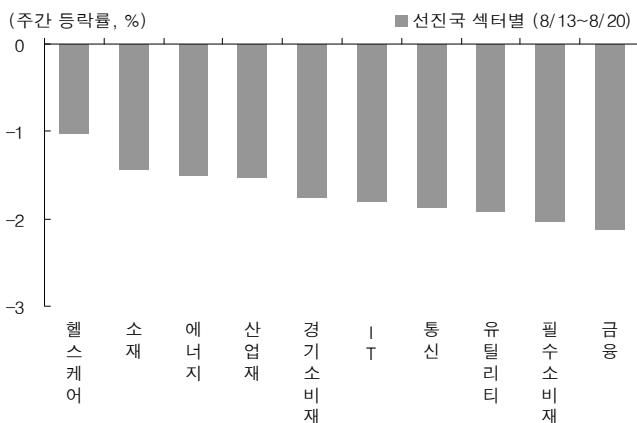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국가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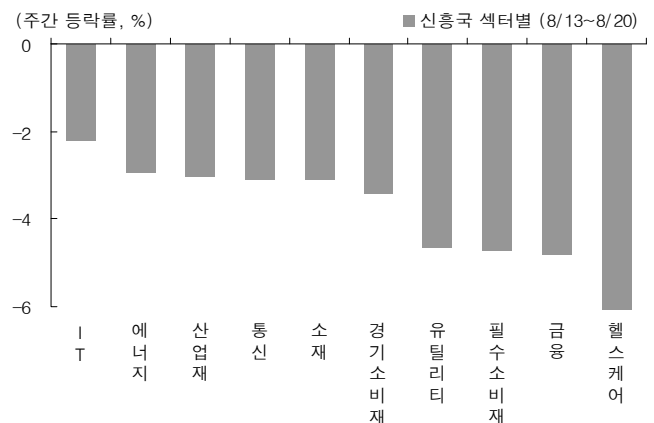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섹터별 주간 등락률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섹터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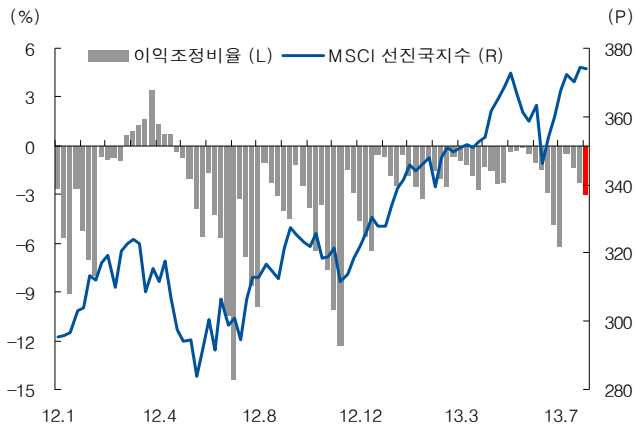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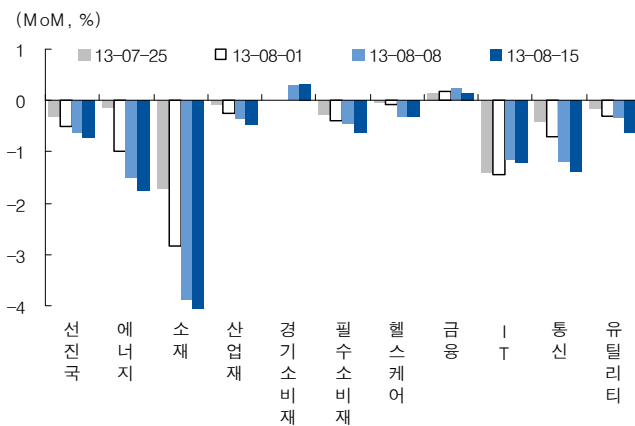
- 일본 기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지속. 미국 기업이익 추정치 8주 연속 전월 대비 (-) 기록
- 선진국 금융 섹터 실적 추정치 변화율 (+) 기록. 신흥국 통신 섹터 실적 추정치 변화율 (+) 지속
- 중국과 한국의 12개월 예상 PER 각각 8.8배, 8.3배로 이머징마켓 평균(10.1배) 하회

MSCI 선진국 이익조정비율과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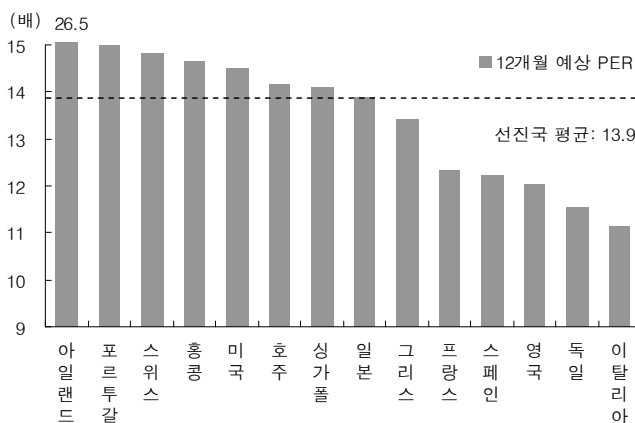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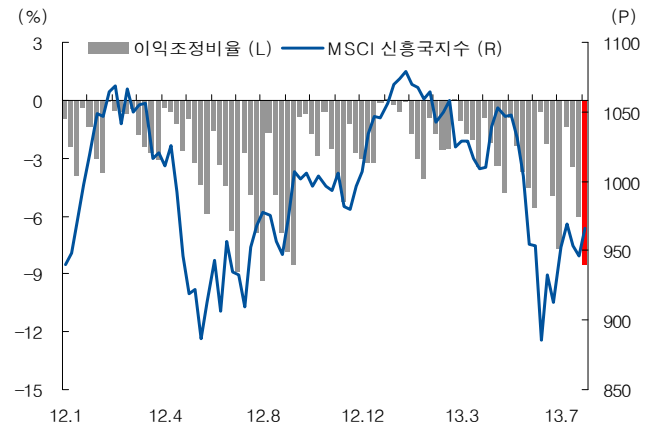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국가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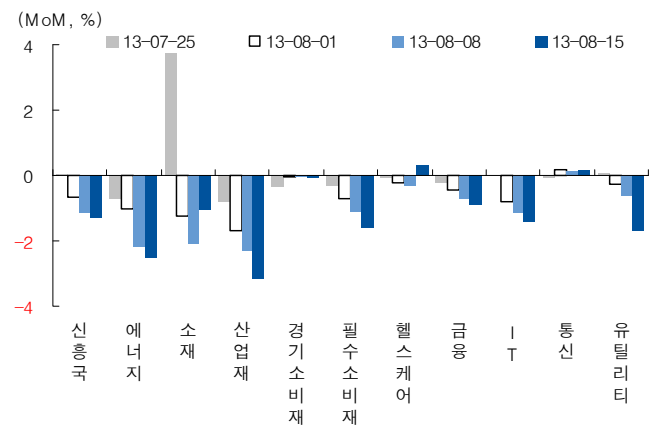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이익조정비율과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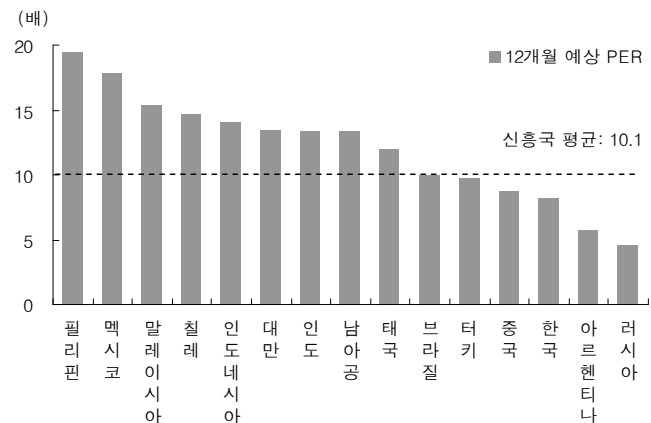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국가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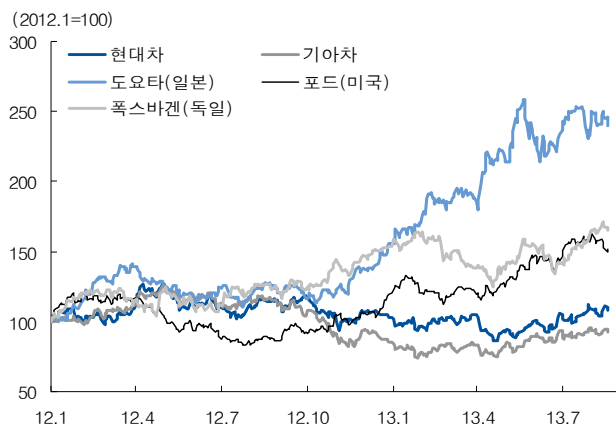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Peer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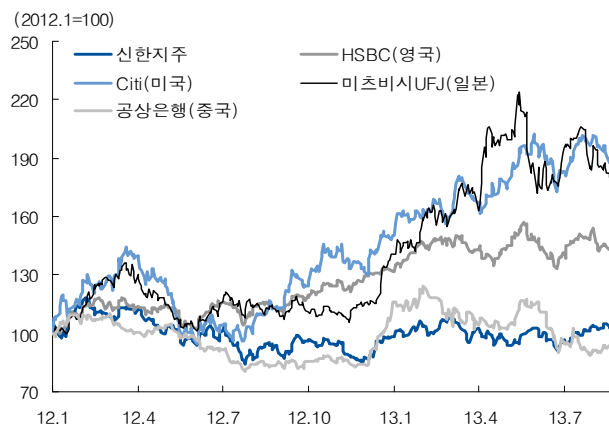
- 자동차: 현대차 0.9% 상승, 기아차 포함. 포드(-4.4%) 주가 약세
- IT: 삼성전자(-1.6%), LG전자(-4.5%) 동반 하락. 애플(+2.3%) 상승, 노키아(-4.4%) 주가 약세
- 유통: 신세계(-5.0%), 롯데쇼핑(-3.5%) 동반 하락. 일본 Seven&I 5.3% 하락

글로벌 자동차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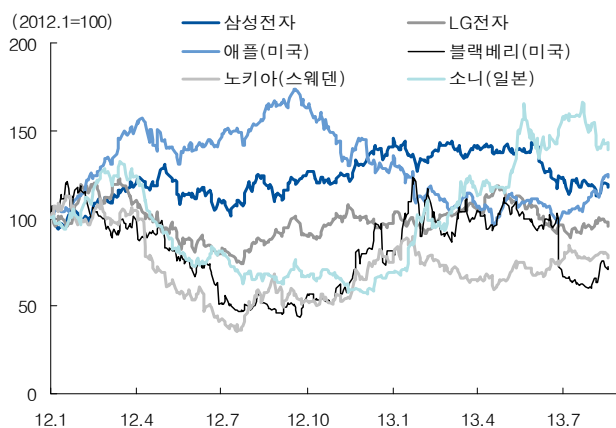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금융 섹터 상대주가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IT/HW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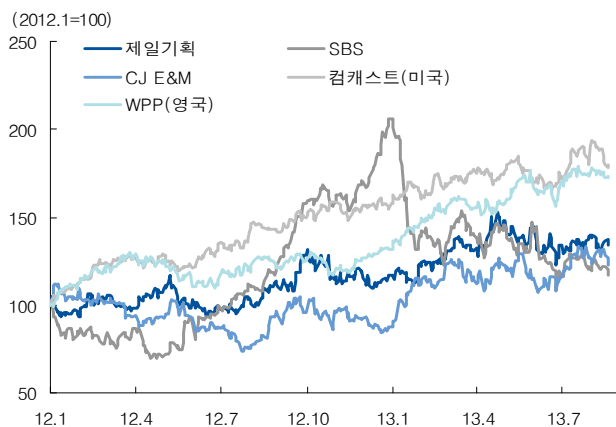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유통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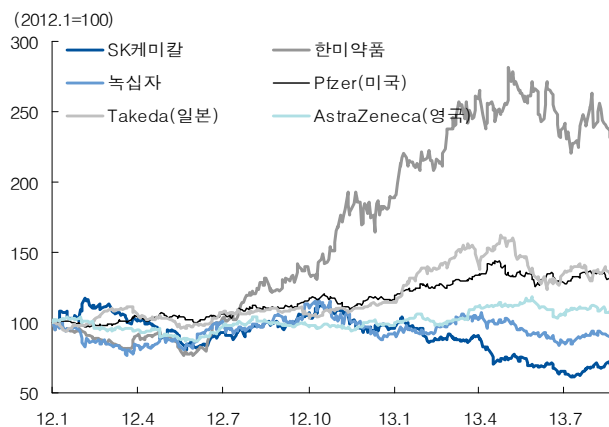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미디어 섹터 상대주가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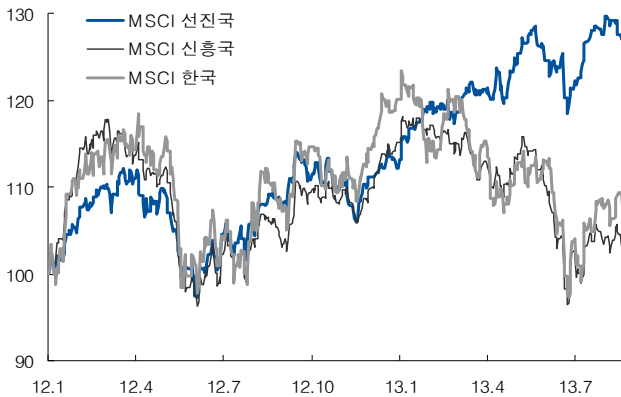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rea Market Monitor

- 한국 이익조정비용 하락, 이머징마켓 대비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
- IT, 통신을 제외한 전 섹터가 지난 한 달간 글로벌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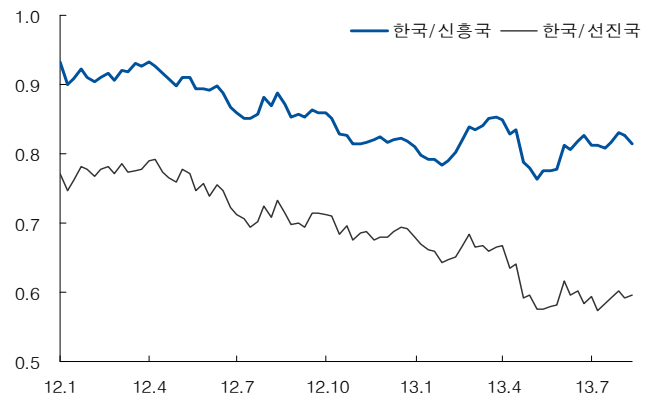
MSCI 한국 지수 상대강도

(2012.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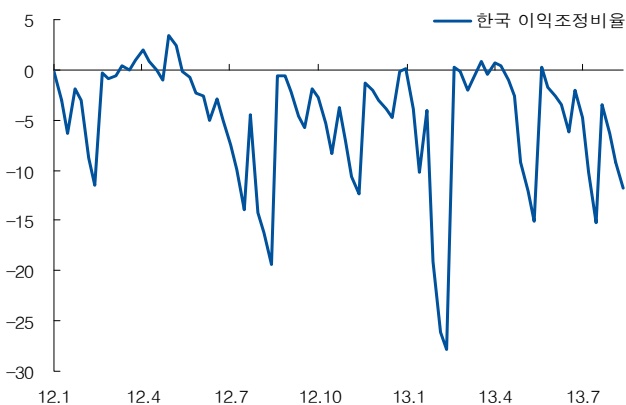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한국 지수 상대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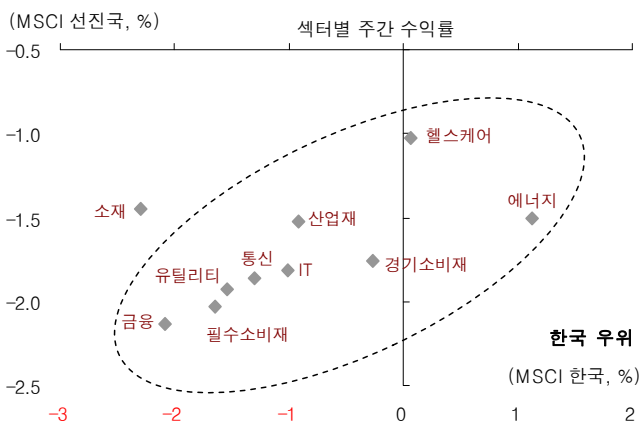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한국 이익조정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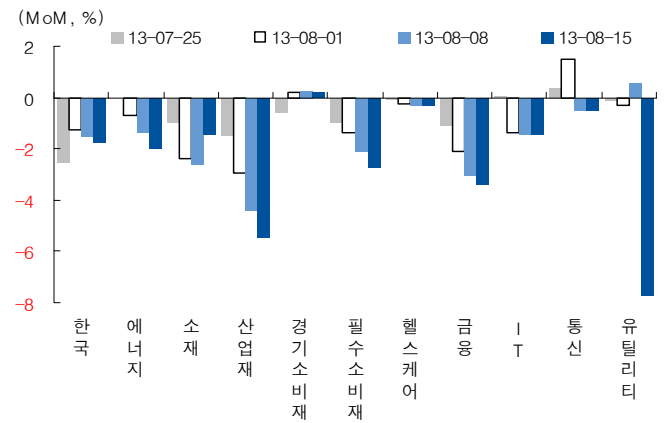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vs. 선진시장 섹터별 수익률 비교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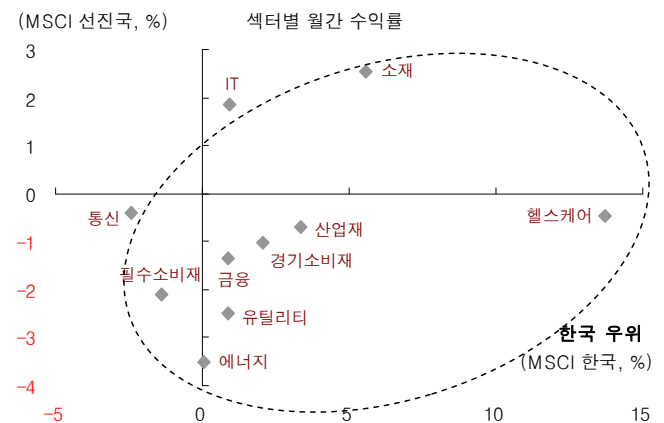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한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vs. 선진시장 섹터별 수익률 비교 (월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에스에프에이 (056190)

숲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LCD/반도체 장비

Results Comment
2013. 8. 22

(Maintain)	매수
목표주가 (원, 12M)	80,000
현재주가(13/08/21, 원)	54,400
상승여력	47%

영업이익(13F, 십억원)	88
Consensus 영업이익(13F, 십억원)	113
EPS 성장률(13F, %)	6.9
MKT EPS 성장률(13F, %)	17.1
P/E(13F, x)	12.8
MKT P/E(13F, x)	9.4
KOSDAQ	530.54
시가총액(십억원)	977
발행주식수(백만주)	18
유동주식비율(%)	52.1
외국인 보유비중(%)	11.1
베타(12M, 일간수익률)	0.78
52주 최저가(원)	39,750
52주 최고가(원)	69,10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6 -6.7 17.1
상대주가	-0.3 0.6 21.0



디스플레이

황준호
02-768-4140
j.hwang@dwsec.com

2Q13 실적: 매출액 1,494억원(+37% YoY), 영업이익 207억원(+39% YoY)

2분기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1,494억원(+29% QoQ, +37% YoY), 영업이익 207억원(+13% QoQ, +39% YoY)을 기록했다. 대우 예상치(매출액 1,383억원, 영업이익 190억원)를 상회했으며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25.1%(-1.4%p QoQ, +4.0%p YoY), 13.9%(-2.0%p QoQ, +3.2%p YoY)로 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동기대비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수익성이 소폭 하락한 이유는 R&D(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판관비가 168억원(+36% QoQ, +61% YoY)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규 수주는 1,233억원(-14% QoQ, +3% YoY)으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중국 LCD 투자, OLED 5.5세대 증설, 넥솔론 태양광 모듈 라인 수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 공정 장비 및 해외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상반기 공정 장비 수주 금액은 1,366억원으로 전년대비 173%, 해외 수주 금액은 1,047억원으로 전년대비 240% 증가했다.

투자포인트: 1) OLED에 대한 삼성의 확신, 2) OLED를 활용한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

최근 삼성 그룹(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벤처투자)은 3,455억원을 투자해 독일 OLED 재료 업체인 Novaled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OLED 재료 수직 계열화, 500개 이상의 OLED 특허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삼성의 OLED 시장 확대에 대한 확신과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커브드 OLED TV의 가격을 1,50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으며 미국 판매를 개시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삼성전자의 OLED TV가 최고의 화면 품질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기존 TV 기술들을 밀어낼 수 있는 '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미국 OLED 재료 업체인 UDC(Universal Display Corporation)는 OLED TV 확대 기대감으로 8월에만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9월 4일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5.7인치로 더욱 커진 Galaxy Note 3와 스마트워치 Galaxy Gear를 출시할 예정이다. OL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이유는 부분 활성화 기능, 커브드, 플렉시블, 투명 디스플레이 등의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0,000원 유지

에스에프에이의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0,000원을 유지한다. 최근 고객사의 신규 OLED 라인(A3) 투자 지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OLED 기술의 잠재력은 단순히 기존 LCD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주가 약세는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십억원)	655	782	508	603	823	929
영업이익(십억원)	69	109	70	88	119	140
영업이익률 (%)	10.5	13.9	13.8	14.6	14.5	15.1
순이익(십억원)	55	89	71	76	101	117
EPS (원)	3,049	4,943	3,972	4,245	5,595	6,506
ROE (%)	21.6	28.0	19.6	18.9	21.3	21.1
P/E (배)	16.1	12.3	11.9	12.8	9.7	8.4
P/B (배)	3.0	3.0	2.1	2.1	1.9	1.6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에스에프에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에스에프에이의 2013년 2분기 주요 손익 추정 및 컨센서스 (K-IFRS 연결 기준)

(십억원, %, %p)

	2Q12	1Q13	2Q13P			성장률	
			잠정치	KDB대우	컨센서스	YoY	QoQ
매출액	109	116	149	138	150	36.6	29.1
영업이익	15	18	21	19	22	38.7	13.3
영업이익률	14	16	13.9	13.7	14	0.2	-1.9
세전이익	17	22	24	21	25	42.8	10.4
순이익	14	17	17	17	19	22.9	-1.1

자료: 에스에프에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WISEfn 컨센서스

표 2. 에스에프에이의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K-IFRS 연결 기준)

(십억원, %)

	변경전			변경후			변경률			변경 이유
	13F	14F	15F	13F	14F	15F	13F	14F	15F	
매출액	612	853	912	603	822	929	-1.5	-3.5	1.9	- OLED 신규라인 투자 지연
영업이익	91	128	135	88	119	140	-3.9	-6.6	4.2	
순이익	80	107	112	76	100	117	-4.4	-5.7	4.3	
EPS	4,442	5,936	6,240	4,245	5,595	6,506	-4.4	-5.7	4.3	
영업이익률	14.9	15.0	14.8	14.6	14.5	15.1	-0.4	-0.5	0.3	
순이익률	13.0	12.5	12.3	12.6	12.2	12.6	-0.4	-0.3	0.3	
원/달러 환율	1,088	1,065	1,065	1,085	1,090	1,090	-0.3	2.3	2.3	

자료: 에스에프에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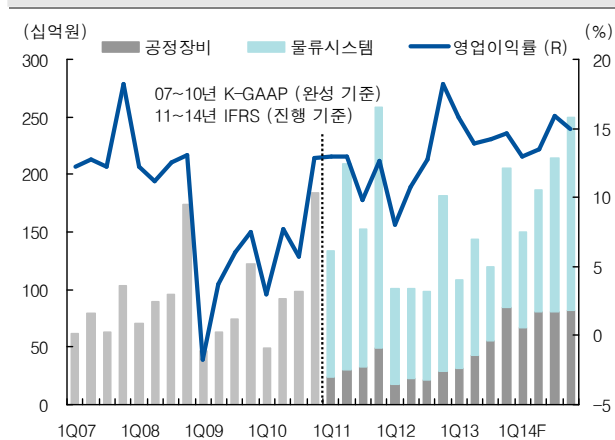
표 3. 에스에프에이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K-IFRS 연결 기준)

(십억원, %)

	1Q13P	2Q13P	3Q13F	4Q13F	1Q14F	2Q14F	3Q14F	4Q14F	2012	2013F	2014F
신규 수주	143	123	133	233	192	183	153	294	517	633	821
매출액	116	149	125	213	155	192	220	256	508	603	822
공정장비	31	43	56	85	67	80	81	82	91	215	310
물류시스템	77	100	65	121	83	106	134	168	390	362	491
매출액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정장비	27.0	28.7	44.6	39.8	43.2	41.8	36.7	32.0	17.9	35.6	37.7
물류시스템	66.2	67.1	51.7	56.8	53.7	55.4	60.8	65.8	76.8	60.1	59.7
영업이익	18.3	20.7	17.8	31.1	20.1	25.9	35.1	38.2	70.0	87.9	119.2
영업이익률	15.8	13.9	14.2	14.6	13.0	13.5	15.9	14.9	13.8	14.6	14.5
순이익	17.3	17.1	15.7	26.1	17.5	22.1	29.2	31.7	71.3	76.2	100.5
순이익률	15.0	11.4	12.6	12.3	11.3	11.5	13.3	12.4	14.1	12.6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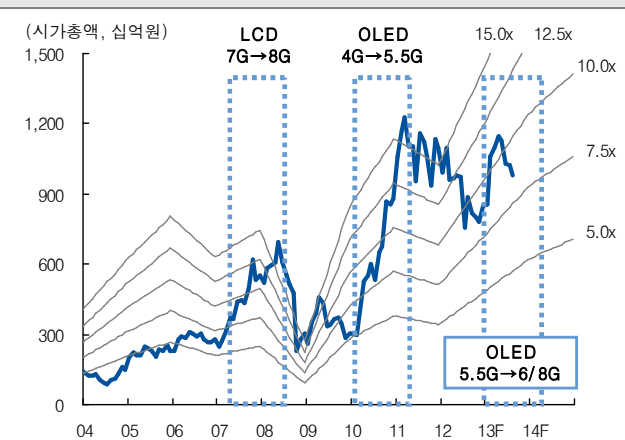
자료: 에스에프에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에스에프에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에스에프에이 P/E 밴드 추이



자료: 에스에프에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814.3 / 5일 -3921.6)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396.2 / 5일 11786.9)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운수장비	487.1	529.1	철강금속	-104.6	-296.1	보험업	67.1	167.0	전기전자	-402.6	6,326.0
유통업	168.7	-252.4	화학	-77.9	-458.8	철강금속	35.9	1,058.1	서비스업	-329.6	220.0
통신업	155.2	-287.8	기계	-57.4	74.9	운수장비	18.4	1,918.7	유통업	-145.2	-108.2
전기전자	137.9	-494.4	음식료	-34.4	-111.6	의료정밀	7.5	3.3	통신업	-117.0	-8.6
금융업	128.3	-1,304.4	서비스업	-34.0	-97.5	기계	5.6	316.7	전기가스	-97.7	18.4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 인버스	264.1	-379.4	KODEX레버리지	-918.3	1,371.3	기아차	430.9	995.6	현대차	-275.3	967.4
현대차	195.4	-61.3	삼성전자	-133.3	-732.7	삼성SDI	65.7	354.3	삼성전자	-196.2	3,315.8
삼성물산	162.8	-44.0	롯데케미칼	-95.9	-311.9	효성	65.5	501.9	KODEX레버리지	-124.2	-12.7
삼성생명	105.2	-72.5	LG화학	-95.0	-266.8	삼성생명	61.4	98.3	삼성물산	-118.6	-110.6
기아차	102.5	44.2	삼성엔지니어링	-89.5	9.1	호텔신라	60.6	66.8	삼성중공업	-89.2	163.3
KODEX 200	101.5	-588.8	삼성SDI	-86.3	-342.6	KCC	58.9	170.7	LG생활건강	-82.0	-134.1
SK	97.9	-20.4	현대제철	-68.2	-49.2	대우조선해양	43.9	-348.4	SK	-80.2	5.2
SK텔레콤	74.8	-274.9	SK이노베이션	-50.2	30.0	롯데케미칼	39.9	694.3	KT	-80.1	-349.6
SK하이닉스	72.0	463.8	효성	-50.2	-431.4	POSCO	38.5	264.6	SK하이닉스	-70.4	1,718.0
현대모비스	71.3	-91.4	현대위아	-48.8	86.3	현대위아	34.9	-48.5	삼성전자우	-67.6	510.5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24.0 / 5일 -535.1)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205.5 / 5일 885.6)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IT부품	58.3	-44.4	반도체	-52.2	206.0	소프트웨어	97.4	170.0	반도체	-62.2	400.2
통신방송	35.5	-205.0	제약	-16.0	-90.8	제약	44.9	74.9	정보기기	-11.0	-7.0
방송서비스	34.3	-126.6	유통	-8.8	-119.5	금속	31.2	204.7	음식료.담배	-4.1	-51.1
화학	21.2	99.0	소프트웨어	-5.4	221.5	기타	16.8	33.5	섬유.의류	-0.8	-0.4
기타	19.7	-85.7	오락.문화	-5.2	-134.8	통신방송	14.1	0.3	건설	-0.8	2.0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GS홈쇼핑	32.8	9.9	루멘스	-35.6	42.8	KG이너시스	96.0	131.7	서울반도체	-66.9	382.0
서울반도체	22.0	66.8	덕산하이메탈	-14.6	55.6	성광벤드	29.7	165.2	GS홈쇼핑	-29.8	-90.0
비에이치	15.7	9.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3.5	-37.0	CJ오쇼핑	22.9	55.6	게임빌	-19.0	-29.7
나노신소재	13.6	40.1	사파이어테크놀로지	-12.9	25.0	셀트리온	20.7	148.9	비아트론	-17.4	-2.4
다음	13.3	-27.8	유진테크	-8.0	-12.6	CJ E&M	20.4	40.4	빅솔론	-13.3	-3.0
서원인텍	12.9	-13.6	화일약품	-7.3	-56.5	덕산하이메탈	18.0	47.3	유진테크	-10.4	-11.5
이노칩	12.8	2.3	아모텍	-7.2	-3.1	엘엠에스	11.2	19.9	유아이엘	-9.5	-19.1
우리산업	10.2	13.1	성광벤드	-6.8	-36.2	포스코 ICT	11.0	37.9	파라다이스	-7.4	-12.8
KH바텍	10.0	-1.3	KG모빌리언스	-6.7	-15.6	위메이드	10.7	7.4	한국사이버결제	-5.4	2.7
엑세스바이오	9.9	6.9	실리콘웍스	-5.9	2.1	우전앤한단	9.4	3.8	젬백스	-4.4	-3.0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ARIRANG 200	15,479.0	삼성SDI	-6,836.4	기아차	6,986.3	KODEX 인버스	-10,021.5
삼성물산	11,459.2	KCC	-4,099.5	삼성생명	6,955.1	LG화학	-3,384.5
TIGER 200	9,252.8	LG화학	-3,968.3	현대모비스	6,555.5	SK이노베이션	-2,610.4
현대차	6,524.0	하나금융지주	-3,391.7	삼성테크윈	4,288.7	롯데케미칼	-1,973.8
KODEX 200	5,437.1	삼성전자	-3,125.5	하나금융지주	4,193.6	한국타이어	-1,876.3
기아차	5,087.5	SK이노베이션	-3,084.8	서흥캡셀	3,699.2	삼성전기	-1,761.4
현대중공업	4,901.8	롯데케미칼	-2,983.2	GS	2,940.6	롯데쇼핑	-1,524.0
SK텔레콤	4,089.0	현대위아	-2,781.8	우리금융	2,721.5	스카이라이프	-1,389.0
LG디스플레이	3,642.8	한국전력	-2,423.5	LG전자	2,292.4	KCC	-1,241.3
SK하이닉스	3,303.4	현대제철	-2,386.1	한국전력	2,262.5	LG이노텍	-1,203.3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레버리지	2,417.6	LG화학	-3,494.1	현대차	5,727.9	SK이노베이션	-3,922.9
삼성SDI	1,338.1	삼성물산	-3,104.6	SK	4,968.2	LG화학	-3,807.5
SK하이닉스	1,005.3	현대상선	-2,697.6	삼성전자	3,661.3	삼성SDI	-3,803.4
기업은행	870.3	POSCO	-1,958.2	LG디스플레이	2,886.0	대우조선해양	-3,071.7
OCI	812.5	삼성전자	-1,644.2	KCC	2,491.1	하나금융지주	-2,079.4
S-Oil	802.8	SK이노베이션	-1,639.0	삼성물산	2,220.9	LG생활건강	-1,455.2
삼성생명	781.9	TIGER 인버스	-1,617.2	SK텔레콤	1,472.7	신세계	-1,444.8
KODEX 200	769.5	KT	-1,529.7	호텔신라	1,256.2	하나투어	-1,437.3
현대중공업	664.9	한국전력	-747.2	SK하이닉스	1,147.7	신한지주	-1,279.8
GS	658.9	삼성엔지니어링	-673.0	유한양행	1,083.4	POSCO	-1,115.8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KODEX 인버스	1,471.8	26,414.2	KODEX 레버리지	12,421.3	91,827.6
삼성생명	6,142.0	10,521.9	삼성전자	19,616.3	13,334.1
기아차	43,089.8	10,249.9	삼성엔지니어링	5,262.1	8,947.0
서흥캡셀	1,642.6	6,297.0	현대제철	862.7	6,817.8
LG전자	313.1	4,289.9	SK이노베이션	4,768.6	5,024.7
OCI	737.2	2,828.9	두산인프라코어	39.4	4,482.4
LG전자우	45.0	1,944.2	현대상선	5,298.6	3,353.1
락앤락	171.2	1,553.8	삼성전기	4,070.3	2,267.5
코오롱인더	1,529.7	1,234.9	대림산업	1,998.2	2,259.5
현대차우	666.1	1,094.9	넥센타이어	3,525.8	222.3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GS홈쇼핑	1,352.6	서울반도체	-947.8	나노신소재	1,074.5	골프존	-647.3
다음	1,221.1	덕산하이메탈	-786.4	GS홈쇼핑	1,027.4	실리콘웍스	-635.6
비에이치	1,108.3	에스에프에이	-536.2	엘엠에스	701.5	CJ E&M	-632.2
엑세스바이오	858.7	에스엠	-515.0	이오테크닉스	667.3	사파이어테크놀로지	-581.2
서원인텍	798.7	동서	-433.0	인터플렉스	575.7	덕산하이메탈	-572.2
파트론	763.8	SK브로드밴드	-362.9	CJ오쇼핑	551.2	유진테크	-435.5
이노칩	656.9	사파이어테크놀로지	-337.5	에스엠	508.5	파트론	-400.4
우리산업	588.5	아모텍	-333.0	에스에프에이	445.1	성광벤드	-309.7
하림	546.7	화일약품	-321.6	코오롱생명과학	439.2	대한약품	-280.9
세코닉스	534.4	성광벤드	-264.7	서원인텍	433.0	메디톡스	-256.4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우리산업	540.1	아이센스	-761.2	파라다이스	629.5	씨티씨바이오	-822.1
가비아	221.4	에코프로	-184.2	GS홈쇼핑	590.2	서울반도체	-708.4
CJ E&M	150.3	유진테크	-174.6	SK브로드밴드	518.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69.8
AP시스템	95.9	KG이니시스	-125.6	케이피에프	328.4	CJ오쇼핑	-469.4
이트레이드증권	93.8	서울반도체	-122.1	파트론	239.1	에스에프에이	-383.3
에스앤씨엔진그룹	87.7	케이아이엔엑스	-73.5	동아화성	203.7	유진테크	-300.8
모두투어	60.6	루멘스	-50.0	크레듀	188.6	아이디스	-266.7
KH바텍	55.6	포스코 ICT	-48.1	코오롱생명과학	187.2	게임빌	-229.3
제이브이엠	50.7	오스템임플란트	-41.5	아이센스	163.3	SG&G	-200.9
휴맥스	36.9	삼천리자전거	-27.7	원익머트리얼즈	157.4	아모텍	-178.4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나노신소재	184.9	1,363.7	유진테크	1,041.1	804.0
다음	284.1	1,332.8	아모텍	209.9	721.5
이노칩	78.1	1,277.4	KG모빌리언스	70.0	670.9
우리산업	61.7	1,022.5	실리콘웍스	291.3	588.2
엘엠에스	1,122.3	906.4	메디포스트	236.4	281.4
조이맥스	284.1	629.7	게임빌	1,903.2	190.0
포스코 ICT	1,103.2	545.7	성우하이텍	194.7	189.7
위메이드	1,068.5	445.1	한국사이버결제	542.2	143.8
KG이니시스	9,602.7	156.9	유아이엘	949.4	132.4
CJ오쇼핑	2,290.6	24.4	비아트론	1,738.3	61.8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황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 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09	1312	1403	KSPH9HCS
기 준 가 격	245.13	245.25	246.80	248.00	1.55
시 가	245.48	245.80	247.15	243.05	1.50
고 가	246.15	246.00	247.40	243.05	1.55
저 가	242.11	241.80	243.25	243.05	1.50
종 가	242.49	241.80	243.25	243.05	1.50
전 일 대 비	-2.64	-3.45	-3.55	-4.95	-0.05
이 른 가 격	-	242.90	244.50	243.45	1.60
총 약 정 수 량 *	101,038	210,206	336	1	840
총 약 정 금 액 **	3,183,296	25,598,874	41,161	122	204,182
미 결 제 약 정	-	115655 (6690)	4313 (471)	500 (-1)	-
배 당 지 수 ***	2.66% (CD금리)	0.00	0.00	2.67	-
반 응 배 수		1.04	1.03	0.00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241			
전 일 대 비		-0.227			

주: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H9HCS : 9월물과 12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 선물 투자자별 매매 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 수	77,805	64,607	57,387	369	5,684	499	3,839	353
	매 도	89,992	60,053	52,924	628	1,811	711	4,277	147
	비 중	39.8%	29.6%	26.2%	0.2%	1.8%	0.3%	1.9%	0.1%
순 매 수 누 적	전 일	-12,187	4,554	4,463	-259	3,873	-212	-438	206
	누 적	-12,473	6,687	5,210	513	-747	309	976	-475
매 매 편 향 강 도		-7.26%	3.65%	4.05%	-25.98%	51.67%	-17.52%	-5.40%	41.20%

주: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 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285	-1.16%	61	1,471	0.00%	NAV (ETF-NAV)%	24,238	24,199
KODEX200	-290	-1.19%	6,243	151,279	6.74%		-0.16%	-0.31%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1%	0.00%
종가/100	242.00	241.25	241.41	241.80	241.80	설정주수	0	1500
eff.delta	1.08	1.10	2.23	1.31	2.24	환매주수	0	1000
diff/basis	-0.20%	-0.51%	-0.44%	-0.69	-0.69	상장주수	15250	191200

주 1: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 표	0.153	콜 평균	0.133	풋 평균	0.177	역사적 (5일)	13.3	역사적 (20일)	12.5
내 재 변 동 성									
월 물 행 사 가 격		1309					1310		
		247.5	245.0	242.5	240.0	237.5	245.0	242.5	240.0
Call	가 격	1.49	2.34	3.30	4.70	6.55	4.15	5.50	7.10
	전 일 대 비	-1.15	-1.51	-2.00	-2.45	-2.50	-1.70	-1.95	-2.15
	내 재 변 동 성	13.40	13.50	12.80	12.60	13.10	13.50	14.00	14.60
	거 래 량	140,916	59,968	11,177	4,233	841	346	255	80
	미 결 제	18,382	9,644	3,495	2,752	750	374	178	69
Put	가 격	7.05	5.40	4.00	2.93	2.07	6.60	5.65	4.50
	전 일 대 비	2.20	1.80	1.41	1.09	0.77	1.50	1.40	1.25
	내 재 변 동 성	17.80	17.50	17.30	17.50	17.60	15.90	16.90	16.80
	거 래 량	7,216	16,237	71,576	178,002	189,440	240	564	609
	미 결 제	9,105	13,692	14,652	22,430	22,104	616	724	1,042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 국 인	개 인	증 권	보 험	투 신	은 행	기 타 법 인	국 가
	매 수	587,681	375,767	314,631	0	842	300	9,164	0
	매 도	589,051	355,536	333,524	0	802	112	9,200	156
	비 중	45.7%	28.4%	25.2%	0.0%	0.1%	0.0%	0.7%	0.0%
순 매 수 누 적	전 일	-1,370	20,231	-18,893	0	40	188	-36	-156
	누 적	13,163	45,807	-53,645	-15	-917	25	-4,328	-92
Put		외 국 인	개 인	증 권	보 험	투 신	은 행	기 타 법 인	국 가
	매 수	667,017	382,153	147,688	0	2,174	432	215	5,631
	매 도	667,328	384,715	143,759	0	2,156	240	202	6,910
	비 중	55.4%	31.8%	12.1%	0.0%	0.2%	0.0%	0.0%	0.5%
순 매 수 누 적	전 일	-311	-2,562	3,929	0	18	192	13	-1,279
	누 적	8,738	-4,930	2,948	0	50	-764	-41	-6,001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 식		주 가지 수 선 물		주 가지 수 CALL 옵션		주 가지 수 PUT 옵션	
		매 도	매 수	매 도	매 수	매 도	매 수	매 도	매 수
차 익 거 래 잔 고 (백 만 원)	최 근 월 물 기 타	5,012,131	8,132,205	8,212,625	5,013,114	-	-	-	-
		-	-	-	-	-	-	-	-
	합 계	5,012,131	8,132,205	8,212,625	5,013,114	0	0	0	0
		프 로 그 램 매 도				프 로 그 램 매 수			
		주 식 거 래 량		주 식 거 래 대 금		주 식 거 래 량		주 식 거 래 대 금	
		수 량	비 율 (%)	금 액	비 율 (%)	수 량	비 율 (%)	금 액	비 율 (%)
프 로 그 램 매 매 동 향 (백 만 원)	차 익	3,139	0.77	184,816	4.33	299	0.07	19,570	0.46
	비 차 익	19,975	4.89	783,332	18.35	16,392	4.01	520,778	12.20
	합 계	23,115	5.66	968,149	22.68	16,692	4.09	540,349	12.66
베 이 시 스 수 준		0.525	0.425	0.325	0.225	0.125	0.025	-0.075	-0.175
차 익 성 순 매 수		4	-563	-39	-212	-370	-468	-1282	-8040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08/21 (수)	08/20 (화)	08/19 (월)	08/16 (금)	08/14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867.46	1,887.85	1,917.64	1,920.11	1,923.91
	이동평균	20일	1,904.41	1,906.25	1,905.87	1,903.56	1,901.33
		60일	1,891.13	1,893.01	1,894.43	1,895.29	1,896.52
		120일	1,928.58	1,929.72	1,930.65	1,931.42	1,932.24
	이격도	20일	98.06	99.03	100.62	100.87	101.19
		60일	98.75	99.73	101.23	101.31	101.44
	거래대금(억원)		43,119.4	42,621.0	33,456.0	37,729.4	41,127.1
시장지표	거래대금 회전율		0.40	0.39	0.30	0.34	0.37
	투자심리도		50	50	50	50	60
	ADR		86.05	95.47	97.04	98.64	97.99
	이동평균	20일	106.17	107.21	107.84	108.06	107.94
	VR		82.33	84.92	106.98	133.93	149.90
코스닥시장			08/21 (수)	08/20 (화)	08/19 (월)	08/16 (금)	08/14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30.54	537.57	550.49	548.79	550.87
	이동평균	20일	548.61	549.16	549.34	548.91	548.55
		60일	540.03	540.81	541.42	541.73	542.16
		120일	547.46	547.49	547.41	547.22	547.05
	이격도	20일	96.71	97.89	100.21	99.98	100.42
		60일	98.24	99.40	101.68	101.30	101.61
	거래대금(억원)		20,358.9	21,301.7	17,729.0	16,342.3	18,816.3
시장지표	거래대금 회전율		1.65	1.71	1.39	1.28	1.47
	투자심리도		50	50	60	60	60
	ADR		81.96	89.25	89.71	90.82	89.93
	이동평균	20일	102.88	104.31	105.43	106.28	107.44
	VR		116.34	121.49	160.58	157.08	174.55
자금지표			08/21 (수)	08/20 (화)	08/19 (월)	08/16 (금)	08/14 (수)
국고채 수익률(3년, %)			2.97	2.94	2.99	2.96	2.97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3.34	3.32	3.37	3.35	3.36
원/달러 환율(원)			1,117.40	1,120.80	1,115.60	1,113.60	1,118.70
원/100엔 환율(원)			1,145.16	1,151.83	1,142.23	1,141.00	1,136.90
CALL금리(%)			2.49	2.49	2.49	2.49	2.50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454	-295	-494	-185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247	-213	-207	-168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49	-130	-27	98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981	80	-1,315	-2,333
MMF 잔고(억원)			-	721,803	724,521	711,173	706,340
고객예탁금(억원)			-	187,076	178,665	179,987	177,165
순수예탁금 증감(억원)			-	6,068	-956	-442	-77
미수금(억원)			-	1,691	1,486	1,510	1,175
신용잔고(억원)			-	45,757	45,962	46,304	46,638